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84

2017. 10. 1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6:42-43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신임 목회자 소개
- 4 목회칼럼, 정신학원 역사
- 5 향존직 선거 결과 발표
- 6 정신학원 개교 130주년 공연안내

교회 일정

- | | |
|------------|----------|
| 10/1 (주일) | 성찬주일 |
| 10/2-7 | 베트남선교 |
| 10/15 (주일) | 추수감사주일 |
| 10/22 (주일) | 세례, 입교식 |
| 10/29 (주일) | 종교개혁기념주일 |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9월 27일 열린 제직회에서 최종 후보인 김화수 목사의 청빙에 대한 찬반이 거수투표로 진행되었다. 이날 투표에서 347명이 출석한 가운데 327명이 찬성함에 따라, 김화수 목사가 제5대 담임목사로 결정되었다.

김화수 목사, 제5대 담임목사로 결정

주님의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대구신광교회 담임목사 재임

김화수 목사가 주님의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결정되었다. 9월 27일 수요일에 열린 제직회에서 주님의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대구신광교회 담임으로 재임 중인 김화수 목사가 거수투표를 통해 담임목사로 최종 결정되었다.

김화수 목사는 1960년 생으로 경북 대학교 철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에서 목회상담 목회신학을 전공했다. 서울 응암교회에서 고등부전도사로 3년, 서울 주님의 교회에서 전임전도사와 부목사로 6년간을 섬겼다. 주님의교회 임기를 마친 후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 10년간 이민교회 사역을 맡았고, 2009년 5월부터 대구신광교회 담임목사로 재임했다.

교회공동체대표자회의, 최종후보 선출
김화수 목사가 당회와 제직회의의 결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작년 4월부터 장장 1년 6개월에 걸친 제5대 담임목사 청빙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제직회에 앞서 지난 9월 9일, 교회공동체대표자회의에서 후보 3인에 대한 최종후보 선정 투표가 있었다. 은퇴장로 10인, 시무장로 18인, 청빙

위원회 8인, 남선교회 12인, 여선교회 12인, 안수집사회 2인, 권사회 2인 총 64명으로 구성된 교회공동체대표자회의에서는 후보에 오른 3인의 설교 동영상 시청 후,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3분의 2 이상이 될 경우에만 최종 후보로 인정하기로 하고 3차에 걸친 투표 끝에 김화수 목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한 바 있다.

당회 만장일치, 제직회 327명 찬성

이후 9월 10일의 당회에서는 청빙위원회에서 보고한 최종 후보인 김화수 목사를 만장일치로 최종 후보로 결의했다. 9월 27일 임시당회장인 김성식 목사의 주재로 개최된 제직회에서 열린 거수투표를 통해 347명 출석, 327명 찬성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임시제직회가 열린 이날, 여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수요일 예배가 끝나자 바로 공동의회가 열려, 2017년 향존직 선거 최종 결과를 발표했고, 바로 공동의회를 폐했다. 이어 임시당회장인 김성식 목사의 주재로 제직회가 시작되었다. 미시오데이 찬양에 이어, 청빙 과정에 대한 청빙위원장 장일형 장로의 경과 보고가 있었다.



김화수 목사

1년 6개월에 걸친 청빙 과정 마쳐

당회 결의로 최종 후보로 선정된 김화수 목사의 “성과 속의 경계선 허물기” 제하의 영상 설교가 방영되는 동안 교우들은 신중하게 신임목사 후보의 설교를 관심 있게 들었다. 이후 투표 방식에 있어, 공개투표와 비밀투표 등 투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거수투표를 통해 김화수 목사의 청빙이 결정되었다.

김화수 목사는 곧 대구신광교회의 사임 절차를 밟고, 주님의교회와 담임목사직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된다. 대구신광교회에서의 원만한 이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님의교회에 부임, 담임목사로 사역을 맡게 되는 것은 최소한 12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10

성찬에 대한 이견

츠빙글리 이야기는 '성찬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 한다. 이것은 츠빙글리의 생각이 가톨릭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인데, 가톨릭과 루터, 츠빙글리와 칼뱅의 주요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한다.

가톨릭의 7성례(성세, 견진, 성체, 고해, 혼배, 종부, 신품)에 대한 기록들은 12세기에 들어오며 찾아볼 수 있는데, 트렌트 공의회(1545-1563년)에서 7성사를 정식으로 인정한 이후



취리히 바서교회의 츠빙글리 동상

현재까지 거행해오고 있다. 가톨릭은 이것이 '은혜의 효과적인 표지'일 뿐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는 성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며 성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가시적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7성례 중 주님에 의해 제정된 성찬과 세례만을 '은혜의 수단'으로 인정한다.

특히 가톨릭은 화체설을 주장한다. 이것은 성만찬을 거행할 때에 떡과 즙의 속성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 주님이 실재(real presence)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루터는 공재설로 성만찬에서 떡과 잔의 본질이 살과 피로 변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성과 인성 사이에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서 우주 전체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주어진 떡과 즙 안에(in), 함께

(with), 밑에(under), 실재(real presence)한다고 보았다. 루터는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말한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

츠빙글리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심판 날에 재림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성만찬 때에 예수님의 몸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츠빙글리는 루터와는 달리 "이것이 내 몸이다"는 말은 "이것이 내 몸을 의미한다."로 이해를 했다. 그는 성만찬을 집례 할 때, 최초 주님의 만찬을 회상하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와 다르면서도 그 둘을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칼뱅은 루터처럼 성만찬에 예수님이 실재로 임재(real presence)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츠빙글리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몸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 대신 주님은 성령으로 성만찬에 오셔서(spiritually real presence)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츠빙글리의 성찬기

준다고 보았다.

성찬에 대해 사담을 덧붙이자면 가톨릭에선 주님을 씹는 불경을 저지룰 수 없어 무교병 전통이 웨이퍼로 대체하였다고 하고, 영성체를 교회에 가장 중요한 곳에 불이 꺼지지 않는 방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 츠빙글리는 성찬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토기로 불품없게 만들어진 성찬기를 사용했다고 하고, 또한 필자가 참석했던 동방정교회 미사에선 성찬식때 사제가 큰 컵에 빵을 포도주에 말아와 수저로 떠 먹여주었는데, 오늘날엔 수건에 닦아가면서 먹이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다. **박주영** 전도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더 바이블 (The Bible) 7

5. 이스라엘의 환경과 사회적 요소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요소를 살펴보고 모세오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유목민으로 시작해서 씨족사회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은 특별한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구약에서 광야나 초원은 물이 매우 적은 곳을 가리킨다.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물이 전혀 없지 않다. 하지만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환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의 공급을 비와 아침이슬을 통해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소중한 존재를 말할 때 아침이슬, 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의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건기는 4~9월을 의미하고 우기는 10~3월까지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넉넉한 물과 휴식의 공간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광야 번두리나 초원을 찾아다녔다.

주로 가나안 지역에서 미디안 민족은 낙타를 키웠고 이스라엘은 양과 염소를 주된 목축으로 했다. 그리고 사울이 소를 잡았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더러는 소를 키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유목생활은 이동방목의 형태를 취했다. 그리고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은 광야 주변을 배회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이동방목의 형태인

목초지 순환의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당연히 사회 구성에 밀접한 영향을 갖는다. 가령 일정한 물웅덩이나 오아시스와 같은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서 사회를 형성시키고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이동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물을 판다거나 오아시스와 같은 형태의 장소에서 재판을 행하며 서로의 규칙을 세우고 지켜나간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유목민은 가족단위를 형성하지만 반유목민은 점점 씨족사회로 탈바꿈을 한다. 결국 이 씨족사회는 부족사회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야곱에

이르기까지는 가족 중심에서 씨족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이후 애굽의 정착은 부족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정착은 유목민과 가나안의 농경민과의 자연스러운 문화충돌과 함께 이스라엘이 부족사회를 넘어 국가 차원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려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초기에 유목민으로 지내야 하는 재산권 분할이나 토지양도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가나안 정착이후에는 슬로브핫의 딸들과 나봇의 포도원 쟁탈 문제를 접하며 사회제도를 만들어 규칙을 세우고 지키며 사회화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은석** 목사

사역보고

우리들학교의 주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들이 모여 이룬 아름다운 선물

우리들학교(관악구 신림동)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비인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재정적 인 면에서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매일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는 주방 환경이 무척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싱크대는 높이가 낮아서 허리통증을 유발하고, 조리대가 없어 몸을 돌려 맞은편의 공간을 이용해야 하고, 양념 수납공간이 없어 긴 동선으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한 주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통일선교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심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움에 나선 여선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불편한 주방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게 되었습니다. 여러 교인들에게 일대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27분이 엄마의 마음으로 후원하여 초기 예상보다 넘치는 후원금이 모집되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운영되는 우리들학교의 열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후원금 모집에 나선 적극적인 권사님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후하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8월 16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초기에 개선하려고 목표한 높이를 조절한 싱크대, 조리대, 대형 선반 및 양념 수납장뿐 아니라 추가로 450리터 5도어 대형 최신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도 장만이 가능했고, 큼직하고 튼튼한 이동선반 2개 및 학생들 수업환경을 위해 교실로 강하게 쏟아지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커튼까지 설치 가능했습니다.

우리들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점



교인들의 후원으로 말끔히 바뀐 우리들학교 주방

심봉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후원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낮설고 외로운 곳에 미리 보내어져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우리가 먼저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위하여 앞으로도

점심봉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목적헌금을 통하여 후원에도 많이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까지 선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영숙 집사 / 통일선교 대외협력지원부

새로 오신 목회자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부족한 사람을 이곳 “주님의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에 앞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하면서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청소년사역원의 사역자로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호 목사 / 국제교육선교, 청소년 사역원

약하고 가난한 분들 섬기는 삶



안녕하세요? 1교구와 소그룹 업무를 하게 된 손경민 전도사입니다. 아직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모든 일을 배움의 기회 삼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함께 성서를 연구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당히 설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이는 이상주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라는 말을 뜻대 삼아 정진하려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주님의교회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손경민 전도사/1교구, 소그룹

섬김과 나눔이 운영하는 송파교육복지센터에서 “꿈잡이 멘토”를 모집합니다.

송파교육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수탁 받아 섬김과나눔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꿈잡이’ 멘토링은 21개의 팀이 학교, 동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송파교육복지센터 등의 공간에서 매주 1회씩 만나 학습, 진로,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멘티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그 과정을 돕고 응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멘티의 꿈을 키워주고 함께하는 ‘꿈잡이 멘토링’의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 **모집대상** : 송파구 거주하는 대학생(휴학생) 및 주민
- **활동내용** : 학습 및 상담,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 **활동혜택** : 멘토링 활동 확인서 발급, 활동비 지급, 멘토링 활동을 통한 나눔과 성장
- **지원방법** : 송파교육복지센터 블로그에서 신청양식 확인 후 이메일(spewc@naver.com)로 멘토 자원봉사 신청 (블로그 : blog.naver.com/spewc)

목회칼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교회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재발견하자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위상이 떨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점차 약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선교적 교회 운동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라는 단어는 대부분 우리 삶과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지금도 ‘선교’란 교회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을 세워, 지역적으로 국내가 아닌 곳으로 보내는 것이며, ‘교회의 선교’란 성도들이 선교사들의 해외 사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하고 돕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 운동은 이러한 이해를 새롭게 바라보자는 교회 운동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지리적 개념의 선교가 아니라, 선교적 사명이 우리 교회와 온 교회, 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운동입니다. 교회 공

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은 ‘선교적 주체’임을 재인식하면서 일터와 지역사회, 가정 등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며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대명령에 따라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 보내짐의 요소를 회복한 교회인 것이죠.

또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각자

우리나라의 담임목사와 같은 ‘시니어 목사(Senior Pastor)’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역할과 사역에 따라 직책을 붙이고 수평적으로 운영합니다. 각 사역팀 역시 일반 성도들이 스텝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권한과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는, 사역 중심적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은 ‘선교적 주체’임을 재인식하면서
일터와 지역사회, 가정 등 모든 곳이 선교지이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며 실천하는 운동으로**

는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건물이나 기관’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교회 그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도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지 않는 교회’이자

사역에 있어 모두가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는 홈페이지나 주보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교회는 대부분 담임목사가 맨 위에 있거나 따로 소개되고 있는데, 미국 교회는 모든 목회자들이 수평적으로 나열됩니다.

담임목사의 부재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 따라 주님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삶의 목적을 맞추어 사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마음가짐, 실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진정으로 동참하는 사명을 인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남은 한해,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직면한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등의 많은 문제들과는 상관없는 본질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대환 목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7

정신여학교에서 정신여자중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로 학제 개편



6.25당시 부산 전시학교

해방 후 학교 재건을 주도한 것은 동문회와 경기노회였다. 해방 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한국선교회를

통해 경영했지만 태평양 전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해방 후 다시 즉시 입국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았다. 학교는 이미 동문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 기관으로 경기노회가 이를 도왔다. 학교의 재산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것이었고, 학교는 재정 자립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편 속에 미국 북장로회는 학교에 재정을 꾸준히 지원하였다.

1950년 6월 3일 김필레 교장이 미 북장로회 본부 주최의 여전도회 대표로 도미를 했다. 그리고 6·25사변이 일어났다. 김필레 교장이 1951년 7월에 귀국했고, 1951년 9월 20일 부산 보수동교회에서 같은 기독교 학교인 송의, 보성과 함께 전시학교 개교를 했다.

1951년 9월 1일 1951년 9월 1일, 정부의 학제개편(6-3-3-4)에 따라 정신여학교가 정신여자중학교(3년)

와 정신여자고등학교(3년)로 분리되었고, 1952년 3월 25일, 용두산 관북교회 가교사에서 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887년 개교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학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학생들이 입학해서 결혼해 학교를 떠나면 졸업이었다. 1903년 중학과가 설치되고, 1907년 중학과 4년으로 학제 변경이 되고 1907년 제1회 졸업식을 하였다. 1909년 교육령에 따라 4년제 정신여학교의 이름을 제정하였다. 1945년 해방과 함께 4년제의 정신여자중학교로 되었다가 1951년부터 각 각 3년제의 정신여자중학교, 정신여자고등학교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2017년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2017년 9월 17일의 1차 선거와 24일의 2차 선거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고된 일을 감당하기로 선정된 항존직 피택자를 소개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장로 3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9명이 피택되었습니다. 피택자들은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내년도 창립기념 주일에 임직되어 여러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가나다 순)

■ 장로



김광일



손영익



조병길

■ 안수집사



김국호



김태진



배태민



손상수



이신형



임정식



정권



정상기



정유석



최현배

■ 권사



권석자



김재민



송 희



오성자



유윤실



윤석춘



장현주



장혜숙



천정희

아기나들이



이지윤 아기

2017년 5월 10일생

1.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온유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2. 세상보다 주님 말씀에 가치를 두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3.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 하며 하루하루 감사와 행복으로 지내게 해주세요.

아빠 이권일 / 엄마 정애리, 2017년 9월 10일 2부 예배



손정현 아기

2017년 4월 14일생

1. 몸과 마음 모두 건강히 자라게 해주세요.
2. 평생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해 주세요.
3.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아빠 손제관 / 엄마 손혜원, 2017년 9월 10일 2부 예배



이시온 아기

2017년 7월 20일생

1.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2. 선한 리더십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3.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아빠 이훈신 / 엄마 정미선, 2017년 9월 10일 3부 예배

모십니다

우리들학교 교사를 모십니다

우리들학교는 주님의교회에서 후원하는 탈북다문화청소년대안학교이며 관악구 신림동에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로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과학	(월) 10:00~10:45, 10:55~11:40
영어	(월) 10:00~10:45, (수) 9:10~9:50, (수) 10:00~10:45
한국어	(월) 14:25~15:10, (화) 11:50~12:35
수학	시간은 따로 정합니다.

모든 과목은 초, 중, 고교 검정고시 및 대입 준비 과정이며, 강의시간과 요일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 : 이병직 안수집사 (010-5285-7060)

홈페이지 : woorldschool.org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공연안내

무용극 <애니 엘러스>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개교 130주년 기념 축하공연



애니 엘러스 선교사는 130년 전 최초의 여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와 불쌍한 조선 여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기 위해 조선의 여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기로 결단했습니다. 명성황후의 시의로 정신여학교의 초대교장과 제중원의 첫여성 의료인으로 섬겼고, 남편 병커와 함께 서대문형무소에서 애국지사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팔아 조선의 학교와 교회와 영아원등에 기부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헌신의 삶을 마치고 현재는 양화진에서 안식하고 계신 분입니다. 14개월 동안 작품을 준비하면서 애니 엘러스의 삶을 깊이 있게 배웠던 믿음의 유산을 모든 크리스천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공연을 통하여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고결한 인격과 희생적인 봉사의 삶을 우리의 몸짓에 담았습니다. 이 감동이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 드립니다.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2017.10.26(목) ~28(토)

예매 : 국립극장 예매처 / 판매처 : 교회 1층 로비

알립니다

1.교구 연합 금요기도회(10월)

일시 : 10월 13일(금) 오후 8:00~9:30 대예배실

주관 : 6교구

매월 첫째 주 거자씨 모임을 기도회로 모입니다.

2.하나님 나라와 영성 훈련

4차 : 10월 23(월)~25(수)

5차 : 11월 27(월)~29(수)

내용 : 침묵기도, 복음관상기도, 기도지도(2회)

신청 : 로비(1층)

문의 : 김용웅 목사(010.4222.7796)

3.독서 인문 T.E.D(테드) 정기 특강

일시 : 10월 1일(주일) 오후 1:00 제1집회실(5층)

제목 : 영화와 인생, 인생과 영화

강사 : 지상학(한국영화예술총연합회장)

문의 : 신영백 안수집사(010.2684.8320)

4.새벽기도 헌신자 10월 기도모임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6:15 제3집회실(1층)

문의 : 손영익 안수집사(010.2287.9258)

5.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1,2,3

일시 : 10월 15일(주일) 오후 1:30 제1집회실(5층)

강사 : 김명식 집사(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문의 : (사)섬김과 나눔(02.415.5113)

6.4부 예배 찬양팀 싱어모집

대상 : 25세 이상 남1/여1 (지속적 섬김이 가능하신 분)

섬김 시간 : 주일 11:20~4부 예배 종료시

문의 : 김희영 집사(010.9965.4707)